奎章閣所藏册板의 내용과 소장처 분석

김윤제*

〈차례〉

- 1. 서론
- 2. 책판의 내용 분석
- 3. 책판의 소장처 분석
- 4. 결론

[국문초록]

규장각에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책판 104종 17,828장이 소장되어 있다. 사부(四部)로 분류하면 경부(經部) 54종 12,119장, 사부(史部) 21종 3,902장, 자부(子部) 17종 1,143장, 집부(集部) 12종 664장이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사서삼경 책판으로는 내각장판(內閣藏板), 영영장판(續營藏板), 영변부 책판(寧邊府册板)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 규장각에는 이들 책판이 각 1질씩 모두 3질 남아있다.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사서삼경 간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사실과 주희(朱熹) 중심의 독서를 통한 성리학 편중 등 조선 후기 사상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춘방장판(春坊藏板)은 19세기 후반 세자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에서 강학용 학습서까지 제작했다는 사실과 그 교재의 내용 등 시강원의 서적 출판기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교서 관책판(校書館册板)은 18세기 후반 영조 어제류 간행 대상과 책판 보관처 등 어제류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외에도 어제류 제작의 배경과 활용 등 그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국 이를 통해 당시 책판 제작의 목적이 국왕관련자료의 현창 보급뿐 아니라 세자 교육이나 왕권 강화 등 통치수단으로까지 확대되어 활용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책판, 내각장판, 영영장판, 영변부책판, 춘방장판, 교서관책판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gyu5468@snu.ac.kr

1. 서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에는 조선 후기에 판각된 책판(册板) 104종 17,828장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소장책판목록(奎章閣所藏册板目錄)』에는 102종 17,821장으로 되어있는데,¹) 청구기호가 별도로 붙여진 '가(假)'번호의 책판 2종 7장까지 합치면 이 수치가 된다.²) 이들 책판은 경복궁 근정전의 회랑(回廊)에 보관되어 오다가, 1970년대 중반에 현황이 파악되어 서울대학교로 이전된 것이다.³)

조선시대에는 활자인쇄가 뛰어나게 발달했지만 목판인쇄 역시 성행했다. 목판인쇄는 책판을 판각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새겨놓으면 언제라도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보급이 필요한 책은 대개 목판으로 인쇄하였다.

목판본은 제작 주체에 따라 크게 관판본(官板本)과 사판본(私板本)으로 나뉜다. 관판본은 중앙관서 혹은 지방관청에서 간행한 책을 말하며 관서의 소속에 따라 중앙관판본과 지방관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서적의 편찬 간행을 담당했던 교서관이나 규장각에서 중요한 책들을 간행 보급했다. 교서관은 '운관(芸館)' 혹은 '운각(芸閣)'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초기에 설립되어 서적의 간행과 보급을 담당했다. 18세기 후반 정조 때 규장각이 설립된 후 이에 편입되어 규장각을 '내각(內閣)', 교서관을 '외각(外閣)'이라 불렀다. 당시 규장각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으로 경사(經史)를 토론하고 많은 책들을 편찬 간행했는데, 내각의 주도 아래 편찬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간행작업은 외각인 교서관에서 담당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간행사업은 교서관과 규장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관서에서도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여 업무에 참고하였다. 외국어 통역과 교육을 담당했던 사역원, 세자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春坊] 등 중앙의 각 전문 관청에서

^{1) 『}奎章閣所藏册板目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²⁾ 다른 책판과 달리 '假'번호로 붙여진 책판은 『곤여전도』 3장과 『숙종어필』 4장이다.

^{3)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 이들 책판도 함께 인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당시 근무했던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의 회고에 의하면 경복궁 回廊에 쌓여있던 책판들을 캠퍼스이사 차량으로 운송하여 새로 지은 관악캠퍼스의 중앙도서관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필요한 책을 직접 출판했던 것이다. 이들 중앙관서에서 제작 보관했던 책판들이 교 서과장과(校書館藏板) 내각장과(內閣藏板) 추방장과(春坊藏板)이다4)

지방관청에서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책을 바탕으로 목판에 새겨 번각본(翻刻本) 을 만들거나 자체 내에서 책을 간행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때로는 중앙의 명령으로 책판을 새겨 올려보내기도 하였다. 지방 관판본의 출판 중심지는 전국 8도 감영이 었지만 그 아래 지방관아에서도 필요한 책을 가행하였다. 경상감영에서 제작한 책 파이 영영장파(宿營藏板)이다

과파본은 사찰본, 서워본, 방각본 등의 사파본(私板本)보다 파각과 인쇄상태가 훨씬 뛰어난데, 특히 교서관장판과 내각장판은 조선시대 정각본(精刻本)을 대표할 정도로 정교하고 오탈자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5) 규장각에 소장된 책 파은 대부분 관파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부는 간기(刊記)를 통해 간행처나 간행년도 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목의 훼손이나 결판(缺板)으로 인해 간기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상당수 있다. 간기가 확인되는 책판은 중앙관판으로는 내각장판, 춘방장판, 교서관책판이 있고, 지방관판으로는 영영장판과 영변부책판을 들 수 있다. 결국 규 장각에는 조선시대 전문관청을 비롯한 중앙정부, 지방관아부터 감영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만든 책판을 골고루 소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규장각에는 다양한 관청에서 제작한 책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는 관판이기 때문에 판각 자체도 사판보다 훨씬 정교하다. 2000년에는 판목 전체 에 대한 오염과 먼지 제거를 위해 세판작업을 거쳤으며, 2004년에는 책판을 조사 정리하여 "규장각소장책파목록」을 발간하였다. 최근에는 훼손된 마구리 부분의 수 리 복원작업까지 추진하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책판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책판은 일반서적과 달리 출 납이나 열람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자료적 특수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책판의 내용과 이동 경위를 추적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의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어느 정도 윤

⁴⁾ 내각과 춘방은 각각 규장각과 시강원의 별칭으로, 내각장판은 규장각 책판, 춘방장판은 시강원 책판이다.

⁵⁾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1996, 151~155쪽. 조선 官板本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하였다.

곽이 밝혀지게 되었다.⁶⁾ 그러나 자료의 소개와 나열에 그쳐 책판이 갖는 의미나 성격에 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감이 있다.

여기서는 남아 있는 책판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것이 담고있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사서삼경류 책판을 통해 조선후기 서적 간행 보급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당시 학문 동향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 왕권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어제류 등 왕실자료가 갖는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여, 신민에 대한 교화와 국가 통치를 지향하는 역사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장처별 분석을 통해서는 책판의 판각 주체와 시기 등 제작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당시 출판 문화정책의 일단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2. 책판의 내용 분석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 104종 17,828장을 사부(四部)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는 『규장각소장책판목록』따랐으며, 이하 책판에 관한 기본정보 는 모두 이에 의거하였다.

	종	수	장	수	비고
	중수	비율	장수	비율	미끄
경부(經部)	54	52 %	12,119	68 %	
사부(史部)	21	20 %	3,902	22 %	어제류 8종 포함
자부(子部)	17	16 %	1,143	6 %	어제류 5종 포함
집부(集部)	12	12 %	664	4 %	어제류 9종 포함
계	104	100	17,828	100	어제류 22종

〈표-1〉사부 분류에 따른 책판의 종수와 장수

종수로는 경부(經部)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의

⁶⁾ 김남기, 「규장각소장 책판의 현황과 가치」, 『고전적』 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6.

순이며, 이는 장수로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장수로 보면 경부의 비중이 더 높아지 는 반면 자부와 집부는 더 낮아지는데, 경부에는 권질이 큰 서적류가 대부분을 차 지하는 반면 자부나 집부에는 한 종당 몇 장 안되는 어제류(御製類)가 많이 포함되 었기 때문이다.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경부 책파은 사서삼경 등 경전류와 이를 위한 학습 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서삼경 책판이다. 사서삼 경 책판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책들이 가장 많이 가행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당시 조선 정부의 출판정책이나 학문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책판 가운데 경 부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조선시대 국가의 기본이념이 유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경부 중에서도 사서삼경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조선의 유학이 성리학 혹은 주자학 중심이었음을 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전을 중심으로 당시 사상계의 흐 름을 먼저 짚어보자.

잘 알다시피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의 일부로 유교 경전이 아니었지만, 송나라 때부터 중시되고 특히 주희(朱熹)가 이를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의 반 열에 올려놓으면서 경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주희는 사서에 대해 장구(章句)를 나누고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四書集計)』를 완성했는데 이후 성리학이 유행하면 서 주희의 의도대로 사서가 유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명의 영락제는 하림학 사 호광(胡廣) 등에게 칙명을 내려 『사서대전(四書大全)』과 『오경대전(五經大全)』 을 편찬하게 했는데 이는 주희의 해설을 중심으로 송원대 유학자들의 주석을 집대 성한 책이다. 『사서대전』의 기본 토대는 주희의 『사서집주』였으며. 『오경대전』 가 운데 핵심이 되는 『시경』. 『서경』. 『주역』의 삼경 역시 주희의 학설이 중심이 되었 다7)

『사서대전』과『오경대전』은 중국에서 가행된 후 곧바로 조선에 수입되어 세종 때부터 간행 보급되었다.8) 명나라 황제의 칙명으로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권위도

^{7) 『}詩傳大全』은 주희의 『詩集傳』을, 『書傳大全』은 주희의 제자인 蔡沈의 『書集傳』을, 『周易傳義大 全』은 程頤의 『伊川易傳」과 주희의 『周易本義』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⁸⁾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서적의 수입과 간행」, 『규장각』 29, 2006. 여기서는 주로 『사서오경대전』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는 주희의 학설이 집대성된 책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급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이 책의 간행을 통해 유교이념을 보급하려 했고, 학자들은 이 책의 학습을 통해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게다가 이 책이 과거시험의 기본서적이 되면서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어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었고, 조선 후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이 책들은 대개 관판본으로 중앙 관청과 지방 감영에서 간행했는데, 서적 보급을 관(官)주도로 했다는 점은 오직 한 가지 판본만으로 사서와 삼경에 대한 해설을 독점했다는 사실과 함께 조선의 유학이 주희 중심의 성리학 위주로 일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자들은 관청에서 간행 보급한 사서삼경에 의지하여 주희의 학설을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명대 이후 유학이 성리학 위주에서 벗어나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후기까지 성리학이 학문적 맹위를 떨쳤던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주자학 일변도의 분위기 속에서 오경에 대한 인식 역시 변하였다. 오경 가운데서도 주희의 해석을 거친 『시경』, 『서경』, 『주역』을 중시하게 되었고, 조선 중기이래 오경보다는 삼경에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오경에서 『춘추』와 『예기』를 제외한 삼경에 중심에 두면서, 동시에 사서를 삼경 못지 않게 중시하여 결국 유학텍스트에 있어서 사서삼경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중국에서 원래 유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경(經)'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의 '오경'이나 '육경', 혹은 『효경』 『이아』 등을 더한 '십삼경'이 거론되던 것과는 다른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대전류에서 사서삼경 체제가 구축된 것처럼 언해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언해는 유교 경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원문에 토(吐)를 달고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인데,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과 주희 학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선조 때 교정청을 설치하고 유신들에게 이를 담당하게 했는데, 사서언해는 선조 때, 삼경언해는 광해군 때 간행되어 보급되었다. 오경에 포함된 『예기』나『춘추』에 대한 언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관본언해(官本證解)이며 이후 사서

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서오경대전』의 수입과 간행과정, 사서삼경 중심의 학문경향 등은 이를 참고 하였다.

삼경 언해는 대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중간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유교경 전'하면 으레 사서삼경을 떠올리게 되었고, 가행 또한 이를 따라 이루어졌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을 통해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분류			종수	서명	계	
		대전류	21	七書 각 3질		
거리근	四書三經	언해류	21	七書 각 3질	43	
경전류		총경류	1	三經四書正文		
	五經類		5	예기, 춘추, 효경3종	5	
	韻書類		2	규장전운, 전운옥편		
학습서	蒙求書		2	동몽선습, 眞草千文	6	
	기타		2	喪禮備要 2종		
계					54	

〈표-2〉 경부 책판의 내용별 분류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부 책판은 모두 54종으로 경전류 48종과 이를 학습하기 위한 운서류(韻書類) 및 아동을 위한 몽구서(蒙求書)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류는 다시 사서삼경과 오경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서삼경은 43종으로 경부의 87%, 전체의 59%에 달하다. 9 사서삼경 책판이 경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규장각 책판 전체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외의 경전인 오경류는 다 합쳐도 3종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 책판 중 경부가 가장 많고, 그 중 경전류가 다수이며, 사서삼경이 대부분이고 오경류는 미미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조선의 기본이념이 유학이었으며, 특히 성리학 중심 의 성향을 보이면서 오경보다는 사서삼경 위주의 텍스트를 선택했다는 역사적 사 실을 자료로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삼경 책판 43종을 다시 구분하면 대전류와 언해류가 42종이고. 『삼경사서 정문(三經四書正文)』 1종이다. 대전류와 언해류를 구분하면 각 21종이 되는데 얼

⁹⁾ 사서삼경의 책판수는 10,536장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비율은 모두 장수를 기준 으로 한다.

핏 계산해도 사서삼경 칠서(七書)마다 3질씩 있는 셈이다. 뒤의 소장처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실제로 사서삼경 대전과 언해 총 14종에 걸쳐 각 3질을 책판을 구비하고 있다. 『삼경사서정문』은 삼경과 사서의 원문만 뽑아서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원래 1775년 임진자(壬辰字)로 간행되었는데 세손인 정조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정조는 주석까지 포함된 『사서오경대전』이 너무 방대하다고 하여 원문만 뽑아간략한 『삼경사서정문』을 만들었다. 경전을 통합하면서도 『예기』와 『춘추』를 제외한 채 사서와 삼경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사서삼경대전에서 사서삼경언해를 거쳐 『삼경사서정문』으로 이어지는 계기적인 출판 현상은 유학 텍스트에 있어서 사서삼경체제의 정착을 의미하며 성리학 기본 교재의 완비를 뜻한다. 사서삼경대전은 성리학의 기본텍스트로 중시되었고 언해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학습서로 이용되었다. 언해 역시 사서삼경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희의 해석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전류에서 구축된 사서삼경 체제가 언해의 보급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규장각 소장 책판중 유일하게 사서삼경만 3질씩 남아 있고 대전과 언해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조선 정부가 사서삼경의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언해를 대전 못지않게 중시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경이 아니라 삼경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삼경사서정문』의 존재 역시 언해와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특징인 사서삼경에 대한 편항성을 입증하는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서삼경을 제외한 나머지 경전류의 책판으로는 『예기집설대전』,10) 『춘추좌씨 전』,11) 『효경대의(孝經大義)』, 『효경언해』가 있다. 『효경대의』는 송나라 학자 동정 (董鼎)이 주희의 『효경간오(孝經刊誤)』에 의거하여 주석한 책으로, 조선시대에는 이 책이 널리 유행하여 『효경대의』를 곧 『효경』으로 인식하였다. 이 밖에 경부의 나머지는 아동들의 학습서로 『동몽선습』 『진초천문(眞草千文)』이 있고, 운서류로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전운옥편(全韻玉篇)』, 기타『상례비요(喪禮備要)』

^{10) 『}예기집설대전』은 『오경대전』 중 일부로, 원나라 陳澔의 『禮記集說』을 위주로 여러 주석들을 모 아 편찬한 것이다.

^{11) 『}춘추좌씨전』은 『오경대전』 중의 『춘추대전』과는 다른 판본으로, 정조가 규장각에 명령해서 주 회의 『자치통감강목』을 본떠 만든 책이며 조선 후기 『춘추좌씨전』의 정본이다. 당시 정유자로 간행되었는데 지방에도 책을 보내 목판으로 번각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책판이 있다.12)

사부의 책파은 21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여 경부 다음으로 많다. 크게 나 누어 역사서, 법전류, 조령류(詔令類)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관련 책판의 경우, 중국 역사서로는 『십구사락통고』라고 부르는 『고금역대 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涌攷)』가 있는데 중국사 입문서 로 널리 이용되어 여러 번 간행되었다. 13) 또 흔히 『통감』 혹은 『통감절요』라고 불 리며 초학자들의 한문교재로 널리 읽혀진 『소미통감절요(少微涌鑑節要)』 책판 14) 여기에 주석을 붙인 『소미가숙점교부음톳감점요(少微家塾點校附音涌鑑節要)』라는 책판도 있다 15)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책판으로는 『동국통감』과 『국조보감』이 있다. 『국조보감』은 조선 역대 국왕의 사적을 기록하 책으로 몇 대가 지나면 추가 로 증보작업이 이루어져 수 차례의 편찬 간행작업이 뒤따랐다 국왕에 관한 기록이 기 때문에 분량도 방대하고 계속된 증보작업을 거치며 책판의 수량도 증가해. 현재 규장각에는 1,216장이 남아 있는데 규장각 소장 책판 중 단일 종으로는 가장 많다. 법전류로는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이 있다. 이 책들은 조선시대 기본법전인

『경국대전』과『속대전』을 이은 것으로『대전통편』은 정조 때. 『대전회통』은 고종 때 만들어졌다. 이 외 사부로 분류된 책판에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기략』 16) 세계지도 목파인 『곤여전도(坤輿全圖)』17) 『수교와문(受敎完文)』18) 『어정인서록 (御定人瑞錄)』이 있으며 19) 나머지 8종은 조령류로 부류되는 영조 어제 책판으로

¹²⁾ 각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장각소장책판목록』과 김남기의 앞의 논문(2006)을 참조할 것. 이들 자료에서 책의 내용 및 저술경위를 밝혔으므로 본 논무에서는 생략하고 필요함 경우 脚註로 처 리하거나 본문에서 간단히 설명한다.

^{13) &#}x27;己卯新刊春坊藏板'이란 가기가 있는데 이 책판으로 찍은 책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4) 『}통감절요』는 송나라 江贄가 사마광의 『資治通鑑』을 바탕으로 편찬한 史書로, 江贄를 少微先生 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런 서명을 붙인 것이다.

¹⁵⁾ 송나라 王逢이 輯義, 史炤가 音釋, 劉剡이 增校하였다.

^{16) 『}璿源系譜記略』은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로 『璿源錄』 혹은 『璿源譜略』이라고도 한다. 숙종 때 처음 간행되었으며,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계속 보완하는 重校와 補刊 과정을 거쳤는데, 왕실족보 편찬과 관리를 맡은 종부시에서 담당하였다.

^{17) 『}坤輿全圖』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벨기에 선교사 페르비스트가 1674년에 제작한 세계지도로, 1856년 중국에서 중간한 것을 바탕으로 1860년 조선에서 다시 만든 목판이다. 전체 4장 중 3장 이 남아 있는데 판각이 극히 정교하며 보물로 지정되었다.

^{18) 『}受敎完文』은 1866년 종친부에서 전주에 사는 효령대군의 후손에게 군역을 면제한다는 完文을 판각한 것이다.

이는 별도의 어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상 사부의 책판 내용은 대개 중국과 조선의 역사서, 기본 법전류, 국왕의 사적이나 족보, 혹은 어제류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역사서는 『십구사략』 혹은 『통감절요』등 중국사의 입문서나 초학자의 한문교재 위주로 되어있다. 『동국통감』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사서이며, 『대전통편』이나 『대전회통』은 조선 후기 기본법전으로 이들 책판이 사부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보감』은 본격적인 역사서라기보다는 왕실자료에 가까운 책으로,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기략』, 종친 관련자료인 『수교완문』,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어정인서록』 등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조령류로 분류된 영조의 어제 8종을 더하면 왕실자료는 모두 12종으로, 사부 전체 책판 21종의 절반 이상을 국왕 관련자료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의 수집 경로가 다양하고, 후대 망실된 책판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책판들이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 국왕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쉽게 집작할 수 있다.

자부는 17종으로 크게 유가류(儒家類)와 예술류로 구분할 수 있다.

유가류에는 소학류 『심경부주』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 『숙홍야매잠(夙興夜寐箴)』이 있는데, 소학류가 『소학대문(小學大文)』 『소학언해』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 등 5종으로 가장 많다. 『소학』은 주희의 주관 아래 제자 유자정(劉子澄)이 아동의 학습과 교화를 위해 만든 책으로, 유교사회의 도덕규범과 인간의 도리 등 수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수록했다. 조선 초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도학을 추구하던 사림(士林)들이 중시했고 나중에는 아동들의 초학교재이자 필독서로 널리 위혀졌다. 따라서 관련책자도 상당히 많고 언해도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소학언해』는 선조 때 교정청에서 사서언해와 함께 편찬 간행되었는데, 사서와 함께 언해작업이 시작된 것을 보더라도 당시 조선에서 『소학』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있다. 규장각 책판 『소학언해』는 이를 바탕으로 영조 때 다시 찍은 책의 목판인데, 1744년에 쓴 영조의 『어제서문(御製序文》 이 붙어있다. 『소학대문』은 『소학』의 대

^{19) 『}御定人瑞錄』은 1795년 정조가 영조 계비인 貞純王后의 51세이자 생모인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상한 내역을 기록한 책이다.

문(大文). 즉 원문만을 수록한 책이다. 『소학제가집주』는 이이(李珥)가 『소학』에 관 한 여러 주석을 정리해 편찬한 것으로 1694년 활자로 간행했는데 규장각 책판은 추방에서 다시 파각한 것이다.

『심경부주』는 솟나라 짓덕수(宣德秀)가 편창하『심경(心經)』에 몃나라 정민정 (程敏政)이 주석을 붙인 책이다 조선에서는 1566년 이敦(李滉)이 「심경후론(心經 後論)」을 써서 이 책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가행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후 사서나 『소학』 『근사록』에 필적하는 성리서로 자리 잡았다 20) 이 때문에 조 선에서 나온 『심경부주』는 모두 이황의 「심경후론」이 끝에 붙어있다. 『고경중마방 』은 이황이 편찬한 책이고 『숙흥아매잠』은 송나라 학자 진백(陳柏)이 지은 글로 모두 유학자의 수양론에 도움이 되는 성리서들이다.

예술류는 역대 명필의 필첩을 모각한 목판들로 『명가필적(名家筆睛)』21)『숙종 어필』. 『화동서법(華東書法)』이 있다.22) 자부의 나머지 어제 5종과 어정서(御定書) 1종은 별도로 다룬다.

이상 자부 전체 17종 가운데 절반 가량인 8종을 유가류가 차지하는데 그 대부분 이 성리서라는 점에서 경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경부에서는 사서삼경 등 성리 학 경전이 중심이 되고, 자부는 성리학을 이해하고 보급하는 데 필요했던 성리서 위주로 되어 있다. 그 가우데 주희의 의도가 반영된 『소학』이나 이황의 인정을 거 친 『심경부주』가 돋보이는데. 이는 경부에서 주희 학설 중심의 사서삼경이 차지하 던 위상과 일맥상통한다. 조선 성리학계에서는 『소학』 『심경부주』 등을 사서삼경 못지 않게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특징이 남아 있는 책판으로도 확인되는 것이다. 자부 책판 중 예술류 필첩을 제외하고는 유가류 이외 다른 분야. 즉 도교나 불교 관련 책판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 역시 성리학 일변도였던 조선의 학문 풍토가 낳은 결과이다. 앞서 경부의 책판에서 확인한 바 조선의 유학 이 사서삼경 중심의 성리학에 치우쳤던 양상들이 자부의 책판들에서도 동일하게

²⁰⁾ 김윤제, 「조선전기 심경의 이해와 보급」, 『한국문화』 18,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6.

^{21) 『}명가필적』은 王羲之의 글씨를 模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刊本이 흔치않은 귀중한 자료이다.

^{22) 『}화동서법』은 중국과 조선의 서예가 6명의 글씨를 모아 판각한 것으로, 1800년 전주에서 開刊한 것을 다시 飜刻한 것으로 추정되는 筆帖 목판이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제류는 『숙종어필』까지 포함하면 모두 7종인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양으로 앞서 사부의 경우처럼 자부에서도 국왕관련 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부는 12종으로 사부 중 가장 적다. 크게 일반문집과 어제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어제류이고 일반문집은 『두율우주(杜律虞註)』,23) 『명고집(鳴皐集)』,『이송(雅頌)』 3종 뿐이다.

『아송』은 정조가 1799년 주희의 시와 운문 가운데 일부를 뽑아 편찬한 책인데, 정조는 주희의 시문 가운데서 도학적 색채가 짙은 글을 엄선했으며, 「어제이송서 (御製雅誦序)」를 지어 시를 교화의 근본으로 이해하던 유학적 전통에 기반하여 문 풍(文風)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이 책은 처음 임진 자로 간행된 이래 보급을 위해서 목판으로 번각되었으며, 중앙관서나 전국의 서원에 반사되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자부 - 유가류에 속해 있지만 어정서로 분류해 다루지 않은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이 있다. 정조가 1794년 주희의 편지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0편을 뽑아 내각에서 간행토록 했는데, 이 책판 역시이의 복각본이다. 일반적으로 집부는 일반 학자들의 문집이 주를 이루는데 비해, 규장각 책판 중 일반인의 문집은 『명고집』 1종 뿐이다. 24) 『이송』이나 『어정주서백선』도 주희의 글을 정조가 일정한 목적 아래 선별 편찬했다는 점에서 역시 순수한일반인의 문집으로 보기 어렵다. 편찬 과정에 정조의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을 통해 신민에 대한 교화와 국가의 통치를 지향하는 간행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왕실의 권위나 국왕의 통치행위를 드러내는 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어제류이다. 어제류는 『규장각소장책판목록』의 집부에 9종, 사부에 8종, 자부에 5종 등 총 22종이 있는데, 집부에서는 별집류, 사부에서는 조령류, 자부에서는 유가류로 분류해 놓았다. 이는 목록 작성시 편의를 위해 분류한 것이지만. 25 여기서는 모두 국왕

^{23) 『}두율우주』는 원나라 虞集이 杜甫의 시 중에서 七言律詩를 뽑고 주석을 붙인 책으로, 조선시대 杜詩 학습의 기본서로 활용되었다.

^{24) 『}명고집』은 조선 중기 詩名이 높았던 任錪의 문집을 1726년 重刊할 때의 판본으로 玄孫 任述이 경상도에서 간행하였다.

²⁵⁾ 목록상 문집이라는 측면에서 集部 - 別集類, 국왕의 글이라는 점에서 史部 - 詔令類, 유학적 내용

의 글, 특히 대부분이 영조의 글이라는 점에서 한꺼번에 다루기로 한다. 『열성어제』 『광묘어제훈사』 『광국지경록』은 영조가 지은 글은 아니지만 영조 때 간행했다는 점에서 영조 어제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6) 『어제상후』 책판은 2질이므로 서명으로 볼 때 어제류 전체는 21종 이다

(표-3) 사부 자부 집부의 어제류

번호	서명	간행연도	내용	분류	비고
1	列聖御製	1726 (영조2)	역대 국왕의 시문집으로 태조부터 경종까지 의 글이 수록됨	詩文	
2	光國志慶錄	1744	선조가 宗系辨誣를 기리기 위해 신하들과 화 답한 시를 모은 책	詩文	
3	御製常訓	1745	숙종 祭日에 부왕의 성덕을 추모하고 세자와 후왕들에게 훈유한 내용	訓書	책판 2질 소 장
4	御製心鑑	1746	세자를 訓諭하기 위해 心學과 관련된 글을 모음	訓書	
5	御製自省編	1746	경전과 역사서에서 수양과 정치에 도움 되는 글을 추려 엮음	訓書	부록 『御製稼 穡篇』 첨부
6	光廟御製訓辭	1747	세조가 1458년 세자에게 내린 訓辭로 영조때 교서관에서 판각함	訓書	
7	御製諭纂修諸 臣	1755	『闡義昭鑑』의 편찬을 담당했던 신하를 불러 하유한 내용.	訓書 義理	『闡義昭鑑』의 서문 일부
8	御製訓書	1756	堯舜과 같은 孝悌의 마음과 심성 수양을 위해 지은 글	訓書	
9	御製古今年代 龜鑑	1757	韓中 역대 왕조의 득실을 서술하여 후대 왕들 의 경계로 삼기 위해 지은 글	訓書鑑戒	
10	御製續常訓	1758	敬天과 愛人 두 항목을 뽑아 내용을 설명한 글	訓書	『御製常訓』의 속편
11	御製續自省編	1759	『어제자성편』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수록함	訓書	『御製自省編』 의 속편
12	揄揚盛烈錄	1762	선대의 왕과 妃嬪들을 현창하기 위해 지은 글	追慕	
13	御製祖訓	1764	세손(정조)에게 내린 10조목(五勸, 五戒)의 訓辭	訓書	
14	御製永世追慕 錄	1764	10년간 慈殿인 仁元王后에게 올린 祝詞를 모 은 글	追慕	

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子部-儒家類로 분류한 것이다.

²⁶⁾ 표 작성에는 『규장각소장책판목록』과 김남기, 앞의 논문(2006)을 참고하였다.

15	御製嚴堤防裕 昆錄	1765	당쟁의 폐단을 논하고 후손들에게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	義理	
16	御製近八裕昆 錄	1769	세손(정조)에게 治者로서 修身의 필요성을 훈 계한 글	訓書	
17	御製追慕錄	1770	『소학』을 강론하다가 그 내용을 인용하여 선 조들을 추모한 글	追慕	
18	續光國志慶錄	1771	『明紀輯略』의 종계를 바로잡은 뒤 영조와 신 하들이 지은 시를 수록한 것	詩文	『光國志慶錄』 을 계승
19	御製勤政訓諭	1771	경복궁 근정전 옛터에 가서 신하들에게 훈유 한 글	訓書 義理	
20	御製樹德全編	1771	肇慶廟 건립 후 선조들의 성덕을 기리고 후손 과 신하들에게 계승을 당부한 글	追慕	
21	御製遵昔年定 銅閣冠禮文	1773	세자 冠禮를 행하는 나이에 대해 定例를 적 은 글	冠禮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하며 52년간 재위하는 동안 5,000편 이상의 어제를 남겼다. 27) 80여종의 간본 이외의 대부분은 필사된 첩본으로, 첩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28) 이들 자료는 봉모당소장 전모(典護) 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이왕직도서관에 보관되었다가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 29) 한편 책자형태의 어제류 간본은 현재 규장각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이렇게 책판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판들은 1종당 대개 20장 미만으로, 책으로는 수십 쪽에 불과한 소책자이다. 형식으로 봐도 본격적인 저술이 아니라 훈유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앞의 다른 책들, 특히 경부의 저작들과는 판연히 구별된다. 내용으로 보면 선대 왕이나 비빈을 추모하는 글, 30)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비판별을 내리거나 당습(黨習)을 경계하는 글, 31) 세손과 신하들을 훈유하는 글 등이다. 32)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당평책 등 붕당의 폐해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격변기

^{27) 『}奉謨堂奉藏書目』2는 영조의 어제만 수록한 목록으로 110책(89종)의 刊本과 5,285첩의 寫本 서 명이 실려있다. 『봉모당도서목록(영인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²⁸⁾ 김상환, 「영조어제첩의 체제와 특성」, 『장서각』 1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12~13쪽.

²⁹⁾ 옥영정, 「봉모당과 소장문헌목록」, 『봉모당도서목록(영인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8~9쪽.

³⁰⁾ 위 〈표-3〉의 분류에서 「追慕」로 분류된 12,14,17,20번 책판이 이에 해당한다.

³¹⁾ 위 〈표-3〉의 분류에서 「義理」로 분류된 7,15,19번 책판이 이에 해당한다.

³²⁾ 위 〈표-3〉의 분류에서 '訓書 로 분류된 대부분의 책판들이 이에 해당한다.

를 거치면서 왕권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자신이 직접 지은 어제를 정치에 적극 활용하였다. 영조 어제의 특징은 수량이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달라졌다는데 있다. 어제를 통해 의리를 밝히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 나 시비문제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시문(詩文) 중심의 어제와는 뚜렷이 구별 되는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33)

대표적인 예가 위 책판 중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비판별을 내리거나 당습을 경 계하는 글이다. 『엄제방유곤록』은 영조가 1763년 산림(山林)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명부을 제시하는 등 직접 시비판별을 처명함으로써 신하들에게 당습을 경계 한 글이다. 『근정훈유』는 당습의 폐단을 강조함으로써 신하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어제유찬수제신』은 『천의소감』의 서문 일부이 다. 『천의소감』은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된 후부터 1755년 나주벽서사건이 일어나 기까지 왕권을 위협했던 많은 사건을 정리한 후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천명해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편찬한 것이다. 영조는 어제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 세 손과 신하들을 교화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등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했 는데, 남아 있는 책판들을 통해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 책판의 소장처 분석

책판들이 언제 어디서 제작 보관되었는지 간기를 통해 소장상황을 추적해보자. 간기 확인이 가능한 소장처별 책판 종수는 다음과 같다.

	經部 (四書三經)	史部	子部	集部	계	書 名
內閣藏板	15 (14)		1		16	경부: 사서삼경대전언해각1종 삼경사서정문 자부: 소화언해

〈표-4〉 소장처별 책판 종수

³³⁾ 이정민, 「영조 어제서의 편찬과 의의」, 『한국사론』 51, 서울대 국사학과, 2005.

, S	黃營藏板	14 (13)	1	1	16	경부: 사서삼경대전언해각1종(주역대전 제외) 상례비요 사부: 소미가숙통감절요 자부: 소학언해
寧	邊府册板	2 (2)		2	4	경부 : 맹자대전 주역대전 자부 : 고경중마방 심경부주
君	等 坊藏板	6	2	1	9	경부: 예기집설대전 춘추좌씨전 효경대의(춘방, 보양청) 동몽선습 전운옥편 사부: 십구사략통고 소미통감절요 자부: 소학제가집주
校書	芸館刊印 沁都藏板		1		1	사부 : 광묘어제훈사
首館	芸館刊印 史庫藏板		3	2	5	사부 : 어제상훈2종 어제속상훈 자부 : 어제고금연대귀감 어제수덕전편
	합계	37	7	7	51	

소장처로 볼 때 내각장판과 영영장판이 가장 많고 춘방장판이 그 다음으로 많다. 내각장판과 영영장판은 경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거의 사서삼경 책판이다. 춘방장판은 대부분 아동을 위한 학습서 계통의 책이고, 교서관책판은 모두 어제류 이다.

앞서 규장각 책판 가운데 사서삼경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간기가 확인되는 책판 중 가장 많은 것 역시 사서삼경이다. 특히 사서삼경은 다른 책판과 달리 여러 질 소장하고 있는데 이 책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빈번히 인출되었기 때문에 다량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서삼경은 총 42종의 책판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간기가 확인되는 것은 내각장판 14종, 영영장판 13종, 영변부책판 2종이다. 나머지는 정확한 소장처를 알 수 없지만 사서삼경 책판의 구성을 이해하면 추정이 가능하다. 사서삼경은 칠서 모두 대전과 언해가 짝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를 한 세트라고 할 때 14종이 한 질이 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할 때 내각장판과 영영장판은 각 1질씩 있는 셈이다. 34) 나머지는 일단 '기타'로 분류하지만 그 가운데 2종에서 영변부 간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를 영변부책판으로 추

³⁴⁾ 내각장판의 일부는 추정이고 영영장판 중 1종은 未詳이나 일단 내각장판과 영영장판으로 분류 했다.

정할 수 있다. 나머지를 모두 합치면 14종 1질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책판 과는 달리 사서삼경은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해 소장처 추정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소장처별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각장판에 대해 살펴보자.35) 내각장판은 모두 16종인데 사서삼경 대전과 어해 책과은 14종이다 이 중 '경진신간내각장판(庚辰新刊內閣藏板)' 간기가 명확히 확이되는 것은 『맹자언해』 『맹자대전』등 8종이지만 36) 『규장각소장책판목록』에 서는 『논어대전』 『대학언해』 등 6종에 대해서도 파각처를 '내각'으로 추정하고 있 다.37) 이 책판들은 간기 부분이 결판되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간행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목록에서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각'으로 추정한 만큼 크게 보아 내각 장판의 계열로 보아도 무방하다. 판심 역시 모두 내각장판과 동일한 '상하향이엽화 무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로 확인된다 내각장판이 확실한 8종과 이들 6종을 합 치면 사서삼경의 언해류와 대전류를 모두 합친 14종 한 세트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다. 따라서 당시 규장각에서 언해까지 포함한 사서삼경 14종 전체에 대한 판각작업 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서삼경을 하나로 묶은 총경류 형태의 판각작업도 병행되었다. '경진신간내각장판'에는 『삼경사서정문』도 포함되어 있는 데, 이 책은 사서와 삼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각 경전의 본문을 수록한 책이다. 이 들 내각장판의 사서삼경대전 책판은 1793년에 활자로 간해된 정유자본을 번각한 것이며. 『삼경사서정문』 역시 1775년 활자로 간행된 임진자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 다. 경진년인 1820년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을 간행 보급하기 위해 규장각 주도의 대규모 판각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서삼경대전과 사서삼경언해 그리고 『삼경사서정무』까지 포함하여 사서삼경에 관하 기본 교재를 촛망라하 것이 다.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내각' 혹은 '경진신간내각장판' 계통의 책판만 하더라 도 사서삼경 14종의 경우 총 3.530장이며 여기에 『삼경사서정문』까지 합치면 3.778장이나 된다. 이 중에는 더러 결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질본은 그 이상이 었음을 생각할 때 당시 판각사업이 대규모의 인력과 물력을 동원한 사업이었음을

^{35) &#}x27;內閣藏板'이라는 간기로 인해 판본을 '內閣本'이라고도 부른다.

³⁶⁾ 뒤의 〈표-5〉에서 내각장판 중 '경진신간'으로 분류한 8종이 이에 해당한다.

³⁷⁾ 뒤의 〈표-5〉에서 내각장판 중 '내각추정'으로 분류한 6종이 이에 해당한다.

짐작할 수 있다.

영영장판은 모두 16종인데, 『상례비요』 『통감절요』 『소학언해』를 제외하면 나 머지 모두 사서삼경이다. 사서삼경 영영장판의 특징은 책마다 가기의 연도가 다르 다는 사실이다. 『논어』는 언해와 대전 모두 '영영장판임오신간(嶺營藏板壬午新刊)' 으로 임오년(1822). 『맹자』역시 언해와 대전 모두 갑신년(1824). 『중용』은 2종 모 두 무자년(1828), 『서경』은 2종 모두 병술년(1826), 『시경』은 2종 모두 무자년으 로 나타난다. 『대학』은 언해는 무자년. 대전은 경진년으로 되어있고. 『주역』의 경 우 언해에서만 영영장판 간기가 확인된다. 결국 사서삼경의 책판 가운데 "주역대전" 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영영장판이 있는 셈인데. 『주역언해』의 영영장판이 남아 있는 반면 그 대본인 『주역대전』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주역대전』전체 책판 3종을 보면 하나는 내각장판이고 하나는 '간기미상'이고 나 머지 하나는 영변부책판이다.38) 『주역대전』 책판도 다른 사서삼경처럼 내각장판 1종. 영영장판 1종. 기타(영변부) 1종으로 구성됐다면. '간기미상'의 『주역대전』은 영영장판이 돼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를 영영장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판심도 이런 추정에 도움이 된다. 이 책판의 판심은 '상하향이엽화문어미'로서 영변부책판 『주역대전』의 잡어미 파심과 구별되는데. 사서삼경 책판 전체로 볼 때 '기타(영변 부)' 판목의 판심이 대개 잡어미인데 반해 영영장판의 판심은 모두 '상하햣이엽화 문어미'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내각장판처럼 많은 서적을 중앙정부에서 간행하기도 했지만 전국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방에서도 필요한 책들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대표적인 지방이 영남지역으로 경상감영에서는 다른 도에 비해 서적을 많이 간행했는데,이 지역이 유학의 뿌리가 깊은데다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역량이 크게 발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 후기 경상감영에서는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한 책을 받아이를 저본으로 복각한 책을 만들어 중앙에 상송하거나 지방에 배포한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39) 그런데 사서삼경처럼 언해까지 포함하여 140권 3,500

 ³⁸⁾ 앞에서 차례대로 "규장각소장책판목록』의 '규목89' '규목90' '규목91'이 이에 해당한다. 뒤의 〈표 -5〉에서 "주역전의대전』 소장처 참조.

³⁹⁾ 윤병태, 「경상감영과 대구지방의 출판인쇄문화」, 『출판학연구』 31, 한국출판협회, 1989.

여 장에 이르는 대량의 서적을 가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판목, 각수, 종이 등을 필요 로 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워의 내각장판과는 달리 판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 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영영장판의 판각연도가 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책파의 가기로 볼 때. 경상감영에서는 1820년대에 집중적으로 사서삼경 책 파 파가사업을 법였으며 대개 2년에 걸쳐 언해와 대전을 포함한 경전 1종씩을 차 례로 새겨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판수로 가늠할 때 대체로 600장 내외의 책판을 판각했는데. 이는 사업의 경험이나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등 당시 경상감 영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다.40) 이들 영영장판은 내각장판과는 달 리 지방관판으로 제작되어 경상감영에 소장되었지만, 후대에 중앙으로 편입되어 중앙관판과 섞여 보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영변부책판'을 살펴보자 41) 사서삼경 책판 중 가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일단 '기타'로 분류해 놓았는데, 그 책판들도 내각장판이나 영영장판과 마찬 가지로 모두 합치면 사서삼경 대전류와 언해류 한 질이 된다. 따라서 이들 책판 역시 원래 한 종류의 책판이었는데 영영장판처럼 중앙으로 모이면서 다른 책판들 과 섞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여러 종이 모인 것이라면 이처럼 딱 들어맞는 한 질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워래 그 책판을 제작 보관한 곳은 어디였 을까? '기타' 책판은 모두 14종인데 그 중 간기가 확인되는 것은 2종으로 『맹자대 전』과 『주역대전』이다. 『맹자대전』에는 '숭정기원후삼임진하영변부중간(崇禎紀元 後三壬辰夏寧邊府重刊)', 『주역대전』에는 '을축오월일영변부개간(乙丑五月日寧邊 府開刊)' 간기가 있다. 이들이 원래 한 질이었다면 나머지 12종도 영변부에서 제작 했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이들 14종 모두 원래 영변부에서 판각한 사서삼경 세트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 판심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각장판이나 영영장 파의 판심이 모두 '상하향이엽화문어미'임에 비해 '기타' 책판의 판심은 『맹자대전』 과 『주역대전』을 포함해 거의 잡어미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맹자대전』의 '임진'은

⁴⁰⁾ 임오년(1822:528장), 갑신년(1824:595장), 병술년(1826:615장)에는 600장 내외를 판각했고, 무자년(1828:858장)에는 다른 해보다 많은 책판을 판각했다.

⁴¹⁾ 남아 있는 영변부 책판 간기에서는 '藏板' 대신 '重刊' 開刊'의 용어만 확인되므로 일단 '영변부 책판'으로 표기했다.

1772년, 「주역대전』의 '을축'은 1805년으로 추정되는데, 자부의 영변부책판인 『고경중마방』과 『심경부주』에서도 '을축' 간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서삼경의 상당수 책판이 을축년, 즉 1805년에 판각된 것으로 생각된다.⁴²⁾

그런데 경상감영처럼 8도의 감영도 아닌 영변부에서 과연 이런 간행사업을 추진 할 수 있었을까? 1796년에 편찬된 『누파고(鏤板考)』에는 당시 전국에 소잣된 중요 한 책판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명 아래 소장처를 밝혀놓았다.⁴³⁾ 사서삼경 언해 7종은 '북하태고사장(北漢太古寺藏)' '영남관찰영장(嶺南觀察營藏)' '영변부장(寧邊 府藏)' 3곳이 수록되고 사서삼경 대전 7종은 위의 3곳을 비롯해 '제주목'과 '관북 관찰영' 등 5곳이 기록되었다. 도 단위 이하의 지방은 영변부와 제주목인데, 대전과 언해 책판을 모두 소장한 곳은 영변부가 유일하다. 당시 영변부는 사서삼경 책판에 관한 한 경상감영과 더불어 대표적인 소장처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기타' 로 분류된 책판 14종 모두를 영변부에서 제작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설령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이 『누판고』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 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서삼경 책판에 관한 한 영변부가 이전부터 대표적인 소장처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추가로 판각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다. 고 생각된다. 실제로 1840년경 작성된 『각도책판목록(各道册板目錄)』에는 경상도 대구의 책판 40종과 평안도 영변의 책판 42종이 수록되었는데, 모두 칠서구해(七 書具解)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영병에 칠서의 대전과 언해를 망라한 14종의 책판 이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감영이 있던 평양에는 불과 4종의 책판이 있었는 데 영변은 평안도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주의 61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던 중요 소장처였다.44)

결국 사서삼경 책판은 칠서마다 대전과 언해가 짝을 이루어 14종이 한 세트를 구성하며, 현재 규장각에 내각장판 1질, 영영장판 1질, 영변부책판(기타) 1질 등 총 3질이 남아 전하는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사서삼경의 판본별 소장상황을 표로

⁴²⁾ 김남기, 앞의 논문(2006)에서도 經部 중 '刊記未詳'의 상당수를 을축년에 영변부에서 판각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을축년을 1805년으로 확정하였다.

⁴³⁾ 徐有榘, 『鏤板考』, 권1, 「御定」; 같은 책, 권2, 「經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사서삼경 책판의 소장현황⁴5)

분류 및 서명		內閣藏板		嶺營藏板	기타	소계	합계	
T.	111 天 110		내각추정	領呂澱似	(영변부)	32/41	ㅂ기	
レッコロ	논어언해	규목8		규목9(임오1822)	규목10	3	6	
논어류	논어집주대전		규목11	규목12(임오)	규목13	3	6	
네됬ㄹ	대학언해		규목17	규목18(무자1828)	규목19	3	_	
대학류	대학장구대전	규목20		규목21(경진1820)	규목22	3	6	
	맹자언해	규목26		규목27(갑신)	규목28	3		
맹자류	맹자집주대전	규목29		규목30(갑신)	규목31 임진영변부(1772)	3	6	
スロロ	중용언해	규목92		규목93(무자1828)	규목94	3		
중용류	중용장구대전	규목95		규목96(무자)	규목97	3	6	
기거리	서전언해		규목40	규목41(병술1826)	규목42	3	6	
서경류	서전대전		규목37	규목38(병술1826)	규목39	3	6	
기거리	시경언해	규목54		규목55(무자1828)	규목56	3	6	
시경류	시전대전		규목57	규목58(무자)	규목59	3	6	
	주역언해		규목86	규목87(무인?)	규목88	3		
주역류	주역전의대전	규목89		규목90 (?)	규목91 을축영변부(1805)	3	6	
합계		8	6	14	14	42	42	

춘방장판은 모두 9종이다. 경부는 『예기집설대전』 『춘추좌씨전』 『효경대의』 『동몽선습』『전운옥편』이고 사부는『십구사략통고』『소미통감절요』 자부는『소 학제가집주』이다. 『효경대의』는 2종으로 1종은 춘방장판이고 1종에는 '보양청중간 (輔養廳重刊)' 간기가 있다. 보양청은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양육을 위하여 설 치된 관서로 세자시강원의 부속기구라는 점에서 춘방장판으로 분류했다. 춘방장판 에는 경부가 가장 많지만 사서삼경 책판은 없고 기타 경전류와 아동용 학습서가 주로 차지한다. 『예기』와 『효경』은 예와 효를 체득해야 하는 세자 학습에 필요한

^{45) 『}규장각소장책판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규목'은 규장각에서 붙인 목판의 청구기호이다. 표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소장처를 추정한 경우이다.

경전류이다. 왕이나 세자들에게 요구되는 강학 교재는 대개 유교 경전과 역사서였 다. 경전을 통해서는 성인(聖人)의 학문을 배우고 역사서를 통해서는 역사의 치란 (治亂)을 교혼삼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춘추좌씨전』 등 역사서를 구비했는 데 세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여 『십구사략』 『통감절요』 등 입문 교재도 제작한 것으로 보이다 『돗못선슴』이나 『소학』 역시 전형적이 아동용 학습서이고 『전우옥 편』은 학습에 필요한 사전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춘방장판은 모두 세자 학습용 교재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시강원에서는 세자의 교육을 담당 했을 뿐만 아니라 교재까지도 직접 제작했던 것이다. 책판 판각 등 강학교재 출판 을 위해 시강원책역소(侍講院册役所)라는 기구를 산하에 두기도 하였다. 거기서 간 행하 책들은 세자 교육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그 후 일반 아동들에게도 보급되어 초학자용 교육에 사용되었다. 춘방장판을 대표하는 판본으로 '기묘신간춘방장판(己 卯新刊春坊藏板)'을 들 수 있는데. 이 '기묘신간'판은 1879년 시강원책역소에서 판 각한 것이다.46) 규장각에 소장된 춘방장판의 상당수가 바로 이 '기묘신간'판이 다.47) 『효경대의』、『통감절요』、『동몽선습』의 경우 요즘 시중에 통용되는 영인본까 지도 '기묘신간춘방장판'을 저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규장각 소장 춘방장판 의 간행물들이 아직도 보급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교서관에서 판각한 '교서관책판'은 6종이다.⁴⁸⁾ 1종은 심도(沁都), 즉 강화도 소장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고 소장판이다. '심도장판(沁都藏板)' 간기가 있는 『광묘어제훈사』는 세조 어제이며, '사고장판(史庫藏板)' 간기가 있는 『상훈』, 『속상훈』, 『고금연대귀감』, 『수덕전편』은 모두 영조 어제이다.⁴⁹⁾ 남아 있는 교서관 책판이모두 어제이고 심도에도 정족산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조의 글을 비롯한 어제류는 교서관에서 목판을 제작하고 그 책판은 사고에서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제류 책판의 제작 보관처가 일반 책판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국

⁴⁶⁾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387쪽.

^{47) 『}통감절요』, 『동몽선습』, 『십구사략』, 『전운옥편』이 이에 해당한다.

⁴⁸⁾ 교서관의 판각 간기는 '芸館刊印' '芸閣刊印' '芸閣開刊' '芸閣新鐫' 등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여기서는 일단 '교서관책판'으로 표기했다.

^{49) &#}x27;史庫藏板' 어제 책판은 모두 5종이지만 『어제상훈』이 2종이므로 서명으로 보면 4종인 셈이다. 『어제상훈』 2종은 내용은 같지만 책판의 크기나 글자수가 약간 다르다.

왕의 저술이라는 중요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서삼경이나 역사서들을 중앙이나 지방관청에서 간행 보급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류의 경우 국왕의 저술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해 교서관에서 판각하고 그 판목은 사고에 보관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류 책판의 보관처에 관해서는 다른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누판고』 는 맨 앞에 「어찬(御撰)」과 「어정(御定)」 항목을 두어 친찬서(親撰書)와 명찬서(命 撰書)를 싣고 있는데 「어찬」 항목에 총 20종의 어제류가 수록되었다.50) 그중 12종 이 규장각 소장 책판의 어제류와 일치한다. 『열성어제』. 『광국지경록』. 『상훈』. 『자 성편』、『고금연대귀감』、『추모록』、『유양성렬록』、『영세추모록』、『속광국지경록』、 『수덕전편』. 『정동위관례문』. 『심감』이다. 그런데 이 중 '종부시장(宗簿寺藏)'의 『열성어제』를 제외하고는 책판의 소장처가 모두 '봉모당장(奉謨堂藏)' 1군데로 나 타난다. 『열성어제』는 영조의 어제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제외하면 모두 '봉 모당장'이 되는 것이다. 봉모당(奉謨堂)은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설립한 규장 각의 중요 기능 중 하나였던 모훈봉안처(謨訓奉安處)였다. 모훈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당연히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 어진 등으로 이들 전모(典謨) 자료를 봉모당이 라는 존각에 봉안했던 것이다.51)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영조의 어제가 많아서 정조 때의 봉안자료는 영조의 어제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52) 따라서 정조 20년에 편찬된 『누판고』에서는 어제류의 책판이 봉모당에 소장되어 있다고 파악하 였다. 위에서 살펴본 어제류 교서관책판은 워래 영조대에 만들어져 사고에 보관되 었다. 동일한 내용의 책판이 여러 질 만들어졌다면 모르나 만약 1~2질에 그쳤다면. 사고에 보관되었던 어제류 책판들은 정조 이후 규장각에 옮겨져 봉모당에 보관되 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⁵⁰⁾ 徐有榘、『鏤板考』、 권1、「御撰」、

⁵¹⁾ 당시 봉모당에 보관되었던 자료의 내용은 규장각에 소장된 『奉謨堂奉安御書總目』 〈규9838〉 이란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영조의 어제류이다.

⁵²⁾ 천혜봉, 「장서각의 역사」,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2쪽.

4. 결론

규장각에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책판 104종 17,828장이 소장되어 있다. 사부로 분류하면 경부 54종 12,119장, 사부 21종 3,902장, 자부 17종 1,143장, 집부 12종 664장이다.

경부는 전체 책판의 2/3 이상으로 유교 경전류가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본경전인 사서삼경 책판이다. 전체 책판 가운데 경부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조선시대 국가의 기본이념이 유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경부 중에서도 사서삼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조선의 유학이 성리학 혹은 주자학 중심이었음을 반영한다. 사부는 역사서와 법전류, 자부는 성리서와 필첩류 책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어제류가 차지한다. 집부는 거의 어제류 책판으로 특히 영조의 어제가 대부분이다. 어제류는 내용에 따라 사부나 자부, 집부로 분류해 놓았지만, 모두 합치면 22종이나 되어 종수로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부나 자부보다 많은 셈이다. 이 어제류들은 왕실 권위와 왕권 강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왕 통치행위의 상징이며, 사서 삼경류와 더불어 규장각 책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자료들은 궁극적으로 신민에 대한 교화와 국가의 통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일치하며, 조선후기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소중하게 보관되어 현재 규장각 소장 책판의 근간이 된 것이다.

책판이 언제 어디서 제작 보관되었는지 간기를 통해 소장상황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부의 핵심인 사서삼경 책판은 43종이다. 종수는 많지만 서명으로 보면 『삼경 사서정문』 1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서삼경의 대전류와 언해류이다. 간기로 볼 때 사서삼경 책판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내각장판, 영영장판, 영변부책판이다. 내각장판은 1820년 규장각 주도하에 사서삼경 대전과 언해, 그리고 『삼경사서정문』까지 포함하여 사서삼경에 관한 기본 텍스트를 모두 판각한 것이다. 영영장판은 1820년대 경상감영에서 근 10년에 걸쳐 사서삼경의 언해류와 대전류 전체에 대한 판각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영변부책판은 1805년을 전후하여 영변부에서 판각한

사서삼경 파목이다. 책파 일부에서만 가기가 확인되지만, 내각장판과 영영장판을 제외한 '기타' 1질 모두가 워래 영변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사부나 자부 집부에서 확인되는 가기로는 춘방장판과 교서관책판이 있다. 추방장파은 시강원에서 파각한 챔파으로 1879년의 '기묘신간'파이 대표적이다. 세 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부서답게 아동용 학습서를 주로 가해했다 『동몽서습』 『소 학』등 전형적인 아동교재와 『십구사략』 『통감절요』 등 입문용 역사서 책판이 남 아 있다. 교서관책판은 대부분 영조의 어제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작은 교서 관에서 했지만 책판은 사고에 보관했는데, 국왕의 저술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다른 일반 서적류 책판과는 구별했던 것이다.

내용 분석을 통해 사서삼경이 규장각 책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는 사 실을 확인했는데, 소장처 분석 결과 이들은 모두 19세기 전반 비슷한 시기에 중앙 정부와 지방관아에서 집중적으로 판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이 무렵 "각 도에서 도학이나 성리학 관련 책자를 많이 간행하여 비치하라"는 명령을 확인 할 수 있는데,53) 당시 관 주도의 사서삼경 책판 제작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분위기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93년 활자로 간행된 정유자본 사서오경대전 을 계승하는 것으로 결국 18세기말의 활자본에 이어 19세기 전반에도 사서삼경을 보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서 다량의 목판본을 제작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19세 기 중반 이후에는 민간에서 간행한 방각본 사서삼경이 유통되기도 하지만 54) 그 이전까지의 성리서들은 이렇듯 관 주도하에 보급되었다. 이는 당시 사상계의 동향 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선 정부의 학문정책이 낳은 결과였다. 조선 후기까지 성리학 의 위상은 여전히 강고했으며, 이를 대표하는 사서삼경이 가장 많이 가했되고 보급 되었다 따라서 많은 책판이 제작된 결과 지금까지 다수의 판목이 전하게 된 것이 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사서삼경 책판으로는 내각장판. 영영장판. 영변부책판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 규장각에는 이들 책판이 각 1질씩 모두 3질 남아 있다. 당시

^{53) 『}純祖實錄』 권14, 11년(1811) 윤3월 13일(辛卯), "教曰 … 各道書院, 凡係道學性理册子, 多印積峙 以爲多士勸獎之資,亦爲興學校之一端. 令該曺,發關各該道,商量印出,置於本道及各該道.

⁵⁴⁾ 다수의 관판본이 판각 간행되었지만 그 보급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민간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자 방각본이 출현하게 되었다. 방각본 사서삼경은 1810년 전주의 '河慶龍藏板'을 저본으로 19세기 말과 일제강점기에 활발히 간행 보급되었다. 김문식, 앞의 논문, 128쪽.

사서삼경 책판의 대표적 소장처에 보관되었던 판목들이 모두 규장각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사서삼경 간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사실과 주희 중심의 독서를 통한 성리학 편중 등 조선 후기 사상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남아 있는 책판들은 당시 서적 간행 보급 추이와 문화정책의 일단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춘방장판은 19세기 후반 세자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에서 강학용 학습서까지 제작했다는 사실과 그 교재의 내용 등 시강원의 서적 출판기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교서관책판은 18세기 후반 영조 어제류 간행 대상과 책판 보관처 등 어제류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외에도 어제류 제작의 배경과 활용 등 그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국 이를 통해 당시 책판 제작의 목적이 국왕관련자료의 현창 보급뿐 아니라 세자 교육이나 왕권 강화 등 통치수단으로까지 확대되어활용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까지 규장각에서는 자체 정리작업을 거쳐 책판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 복원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데, 아마도 책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려운 접근성 제약,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운 자료적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도 주로 『규장각소장책판목록』에 의거하여 정리하였으며, 실사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 간기가 확인된 책판 위주로 소장처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추후 정밀한 조사를 통한 본격적 연구가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T	
ι.		T

『絊和實錄』

『鏤板考』

『各道册板目録』〈奎7926〉

『奉謨堂奉安御書總目』〈奎9838〉

『韓國의 册板目錄』, 保景文化社, 1995.

『侍講院志(影印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奎章閣所藏册板目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奉謨堂圖書目錄(影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논저

김남기, 「규장각소장 책판의 현황과 가치」, 『고전적』 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6.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서적의 수입과 간행」, 『규장각』 29, 2006. 김윤제, "조선전기 심경의 이해와 보급」, "한국문화』 18,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6. 이정민, 「영조 어제서의 편찬과 의의」, 『한국사론』 51, 서울대 국사학과, 2005. 김상환, '영조어제첩의 체제와 특성」, 『장서각』 1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옥영정. 「봉모당과 소장문헌목록」, 『봉모당도서목록(영인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___,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방효순, 「芸閣册都錄을 통해본 교서관장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8, 한국서지학회, 1992. 윤병태, 「경상감영과 대구지방의 출판인쇄문화」, 『출판학연구』 31, 한국출판협회, 1989. , "평양의 목판인쇄 출판문화., "출판학연구』34, 한국출판협회, 1992.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1996.

____, 「장서각의 역사」,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A study on the contents and storage of woodblocks in the Kyujanggak

Kim, Yunje

The Kyujanggak has 104 kinds of 17,828 printing woodblocks engraved in the late Choson Dynasty. By their type, the woodblocks are assorted into 4 groups(四部) —54 kinds of 12,119 for Gyeongbu(經部), 21 kinds of 3,902 for Sabu(史部), 17 kinds of 1,143 for Jabu(子部), and 12 kinds of 664 for Jipbu(集部).

Among those woodblocks, Negakjangpan(內閣藏板), Youngyoungjangpan(嶺營藏板), and Youngbyunbu woodblocks(寧邊府册板) are representatives of the Three Confucian Classics(三經) and the Four Books(四書) in the late Choson Dynasty, and The Kyujanggak has one set for each, three sets in total. What this shows is that the publication of the Three Confucian Classics(三經) and the Four Books(四書) in the early 19th century was quite active and that the realm of ideas was limited to the Neo-Confucianism, which emphasizes the reading based on the explanations of Zhu Xi(朱熹).

And Chunbangjangpan(春坊藏板) let us know the fact that Sikangwon(侍講院), which was responsible for education of crown prince, produced educational books as well. The contents of the book is for education of crown prince and it provides us a clue to the publishing function of Sikangwon(侍講院). Also, Gyoseogwan woodblocks(校書館册板) gives us a direct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of King Youngjo's Eojae(英祖 御製), such as the target of its publication and the storage place of its woodblocks in the late 18th century. Furthermore, it helps us to figure out its political significance by its background in production and use. In the end, we can see that the purpose of producing woodblocks at that time was

not only limited to the supply of dossiers on king but also extended to the means of ruling, such as the education of crown prince and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Key Words: printing woodblocks(册板), Negakjangpan(內閣藏板), Youngyoungjangpan(嶺營藏板), Chunbangjangpan(春坊藏板), Youngbyunbu woodblocks(寧邊府册板), Gyoseogwan woodblocks(校書館册板)